

듀이의 '하나의 경험' 과 들뢰즈의 '배움' 의 의미 관계 탐구: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John Dewey's "One Experience" and
Jill Deleuze's "Learning": From Teaching to Learning

엄혜윤

한국교육대학교

Eom hye-y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의미 있는 '하나의 경험'은 성장을 가져온다. 존 듀이는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예술작품이 만족스럽게 완결에 이르게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침내 도출되는 것이라 말한다. 독서를 하거나 책을 쓰는 것 등도 언젠가는 종결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종결은 단순히 중지(cessation)가 아닌 하나의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통일체(a whole)이며 그것 자체의 개별화된 특질과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경험'이 되는 배움이란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로서 인정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교육 경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입장의 배움, 자발성에 근거한 들뢰즈의 '배움' 이론이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되는 의미 있는 가치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I. 서론 - 배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반성과 갱신, 이에 따른 지적, 인격적, 감성적, 영적, 신체적인 변화와 성장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배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움은 인간의 삶에 필연적인 것이다[1].

배움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배우는 자가 자연 및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배움의 지속성, 수정가능성, 발전성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배움은 일회적으로 일어나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배운 내용도 외부와의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반성을 통해 그 오류를 시정하고 부족한 점을 계속적으로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다[2].

배움을 학교교육의 정형화된 학습과정으로 국한시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듀이의 경험의 개념에 토대한 배움은 인간과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아이들은 부모, 가족,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동작이나 표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들은 어떠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2].

그러나 교육자, 철학자들의 이상적인 배움 이론의 정의와 다르게 한국의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배

움에 몰입하고 이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곤 한다.

계획-실행-평가라는 특징을 지니는 체계적 합리적인 교육과정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길들을 단일화 해버리는 획일화의 장치로 변질되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비형식적 교육(non-formal education)'에 대한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1].

II.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들뢰즈는 학생들이 개념을 학습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사유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개념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오히려 사유의 마비 상태나 사유가 단지 가능하기만 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들뢰즈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것은 기호하고 말한다. 기호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배워나가는 대상이다.

그러면 기호를 배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호는 연속적으로 변이하는 다양체이자 문제제기적인 특성을 지니는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배움론 학습에서 진정한 자발성이 무엇인지 반추하게 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 학습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학생이 진정으로 자발성을 발휘하는 곳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를 학습 방법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들뢰즈에게 있어 배움의 방법은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기호와 마주치는 우연이 유희 속에서 학습자가 진정한 자발성을 갖고 학습을 수행하는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들뢰즈의 배움론은 교육방법을 ‘교사에 의해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 특정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자가 진정한 자발성을 갖고 배움을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 특이적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전향시켜준다.

Ⅲ. ‘하나의 경험’이 되는 배움을 어떻게 생성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경험하는 어떠한 일이 순차적으로 ‘성취감(fulfillment)’의 완성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의 경험’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만족스러운 완결에 이르게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침내 도출된다. 독서를 하거나 책을 쓰는 것 등도 언젠가는 종결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종결은 단순히 중지(cessation)가 아닌 하나의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통일체이며 그것 자체의 개별화된 특질과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험을 듀이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3).

하나의 경험은 어떤 특정한 경험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경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경험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이상적인 경험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경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표준일 수도 있으며,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일 수 있는 것이다.

Ⅳ. 결론

듀이의 경험이론은 그 자체로 교육 이론이기도 하거나와 그가 인간경험의 성격과 특징에 입각하여 인간이 성장과 교육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이 교육과 맺는 관련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4).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이라는 상의하달방식은 과거 도제교육의 학습 방식으로 굳어져 왔으며, 교실교육,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도입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의 교육 지향점은 이제 ‘배움’ 중심의 자발적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거꾸로 교실, 역량중심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제 등은 ‘배움’ 중심의 교육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며, 배움을 통해 ‘하나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배지현 “들뢰즈의 철학에서 ‘배움’의 교육과정적 함의: 배움의 우연성에 기초한 대안적 교육과정의 개념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30권, 제4호, pp.0-27, 2012.
- [2] 심승환 “프래그머티즘의 시각에서 본 배움의 의미”, 교육문제연구, 제28권, pp.49-81.
- [3] 정정철 “학교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경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1호, pp.161-184.
- [4] 이승은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과 내러티브 형성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8호, pp.391-416.